

존 던의 양성평등적 사랑

이 상 엽

경희대학교

I.

필자는 2003년에 필자의 졸고, 「존 던의 「연가」에 나타난 사랑의 정치학: 여성혐오를 중심으로」에서 던이 여성혐오자(misogynist)라는 전제하에서 논문을 작성한 바가 있다(67-98). 이렇게 된 계기는 쥐버리(Achsa Guibbory)의 논문 때문이었는데, 쥐버리는 그녀의 논문 「“그렇게 봉사하지 않겠노라”: 던의 「엘레지」에 나타난 사랑의 정치학」에서 던의 「엘레지」(“Elegies”)에는 여성혐오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규정하고 자신의 논의를 전개했다(17-36). 그녀는 던은 결국 그의 작품에서 여성을 폐쇄적이고 범할 수 없는 그런 순결을 지닌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천박하고 불순하고 심지어는 역겨운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쥐버리에 따르면, 던은 궁정풍 연애시와 페트라르카풍 연애시의 특색이 되는 것으로서 여성의 몸을 세련되고 고상하고 순결한 것으로 묘사하는 그런 고전적 묘사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괴기한”(grotesque; 20) 여성의 몸을 그리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던이 “괴기한” 여성의 몸에 매력을 느껴서가 아니라 이상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타파하고 이로써 여성은 불쾌한 존재이며 고로 숭배의 대상이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그의 욕구/욕망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쥐버리는 그 예로서 「글자 수수께끼」(“The Anagram”)를 들고 있는데 이 시

에서 던은 눈을 작고 흐리며 입은 크고 이빨은 새까맣고 머리카락은 붉은 그런 여성을 그림으로써 여성을 기괴하고 “더러운”(foule) 존재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던은 여성의 미를 금발의 머리, 작은 입, 진주같이 하얀 치아로 그리는 관례적인 페트라르카풍의 묘사를 장난치듯이 조롱한다는 것이다. 이 시는 그 자체로 추녀라고 하는 이미 밝혀진 주제에서만뿐만 아니라 얼굴묘사로부터 생식 기묘사로 이동하는 것에서 보듯이 위로부터 아래로의 하강/전락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인의 생식기는 그녀와 결혼을 감행하려는 남자에게는 모든 경쟁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녀의 순결을 지켜 줄 “불결한 더러움”(dirty foulness)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 여인의 얼굴과 생식기를 불쾌하게 연결하고 있으며 둘 다 “더럽다”는 것이다. 얼굴의 더러움이 생식기의 더러움을 거울처럼 반영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시의 보다 큰 의미는 이렇게 천박하고 기괴한 여성의 몸은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의 몸을 왜곡된 형태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퀴버리의 이러한 주장은 매러띠(Arthur F. Marotti)가 인식한 연애시의 정치적 차원을 좀 더 발전시킨 것으로서 좀 더 나아가 사랑은 정치의 메타포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사랑에는 남자와 여자사이의 권력거래(power transaction)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던이 여성의 몸과 성관계, 그리고 성적 차이와 같은 연애관계를 재현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던이 사랑에서의 권력관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 가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공적인 정치와 교차하는 가를 보였다고 말한다¹. 발드(R. C. Bald)가 쓴 던의 전기에 바탕을 둔 매러띠의 이러한 주장은 문학과 역사를 연결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으로서 던의 시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배

¹ 매러띠는 그의 논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엘리자베스 시대 소네트 연작과 사회질서』에서 사회적 지위와 야망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르네상스시대의 연애시를 사회·경제적(socioeconomic)으로, 혹은 사회·정치적(sociopolitical)으로 암호화(encoding)된 것으로 보았다(396-428). 그는 또한 그의 저서 『존 던, 동아리 시인』(John Donne: Coterie Poet)에서 던의 연애시에 나타난 그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면서 던의 시를 암호화된 언어로 쓰여진 “동아리” 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20-1). 또한 그는 던의 시는, 특히 연애시는, 던의 사회·경제적, 혹은 사회·정치적 권력에 대한 좌절된 야망을 구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케리(John Carey)도 그의 저서 『존 던: 삶, 마음, 예술』(John Donne: Life, Mind, and Art)에서 던의 시를 형성하는 원리는 권력이라고 주장한다(117).

경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매러띠가 이러한 사랑의 언어와 정치 사이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필자가 2003년도 논문을 작성할 때에도 매러띠는 줄곧 던의 연애시의 주제를 사회·경제적인 권력이요, 야망의 차원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던의 시에 대한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매러띠의 주장은 엘리자베스시대 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긍정풍 사랑의 언어가 갖는 정치적 차원을 탁월하게 보이고는 있으나 그의 논점은 사랑과 정치사이의 상호관계를 보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측면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사랑은 단순히 메타포의 매개체가 되고 주제는 언제나 정치적인 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쥐버리의 논조는 분명 던을 여성혐오자라고 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입각해서 필자는 논문을 작성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던의 시를 여성혐오라는 각도에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은 던의 시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프레체로(John Freccero)의 논문, 「던의 콤파스 이미지」(“Donne’s Compass Image”)가 이러한 깨달음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 (11-26) 그의 지적에 따르면, 던은 “사랑에 대한 신페트라르카주의와 신플라톤주의의 비인간화에 저항”(protest against the neo-Petrarchan and Neoplatonic dehumanization of love; 12)했고 “천사와 같은 신비주의로부터 인간적인 사랑을 구원하여 그것을 인간성이라고 하는 본래의 영역으로 되돌렸다”(rescuing human love from the angelic mysticism and . . . restoring it to its proper domain: humanity; 12)는 것이다. 던의 선배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당시의 여성상은 아름답고 완벽한 여성으로서 외모뿐만이 아니라 정조를 지키고 있는 순결한 처녀였고 이는 여러 소네트 안에서 페트라르카풍으로 찬양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던이 가졌던 여성에 관한 냉소적인 관점은 종종 여성비하적이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던만이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 기상과 역설, 그만의 위트가 두드러진 작품들을 보면 이러한 냉소적 여성관이 사실은 던이 표현하고자 하는 요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던이 사용한 역설로 볼 때 오히려 그것은 양성 평등적인 사랑관을 나타내려고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필자는 던이 이상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타파했다고 주장하는 쥐버리의 견해는 받아들이면서도 던의 시는, 비록 냉소적인 어조이지만,

여성혐오라는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서 오히려 그것은 남녀의 양성평등을 옹호하려는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던의 몇몇 시는 여성에 대한 냉소적 표현으로 되어 있으나 그의 작품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양성 평등적 관념이 강하게 배태되어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더욱이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여성을 비하하고 냉소적인 시와는 달리 육체적 사랑만도 아니요, 정신적 사랑만도 아닌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을 혼합하고 초월하는 변증법적인 융합인 완전한 사랑(perfect love)을 구가하는 던의 대표적인 시들에서는 양성평등이 훌륭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이고자 한다. 인용된 작품들에 관한 간략한 내용분석과 함께 논의가 전개되겠으나 참고로 본 논문에서는 양성평등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여성주의’(feminism)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혹은 가부장적인 사회제도에 대한 체제전복적인 측면에만 의거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여성주의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의미는 교묘하게 ‘여성’이라는 말이 갖는 거부감을 대체하면서 남성 지배구조를 전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그들의 사회적 차원에서나 개인적 차원에서, 즉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특히 성적(性的) 역할에서 어떤 이데올로기에 속박됨이 없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등하면서 한결같은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한정한다.

II.

던의 시에 나타난 양성 평등적 남녀의 관계를 논할 때, 던은 왜 그토록 엉뚱하고도 놀라울 정도로 기지가 넘치는 시에서 여성을 평가절하의 대상으로 삼았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던의 시에서는 유머(humor)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유머는 종종 진지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던의 시를 규명하는데 많은 단초를 제공한다. 비록 던은 다양한 가면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태도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는 이러한 역할들과 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다. 그러므로 그의 시 중에 완전한 사랑을 찬미한 시들만이 그의 진실한 감정을 표현한 작품으로 간주하면서 여성을 혐오하거나 냉소하는 시들은 단순히 수사적인 측면으로만 보거나 문학적 관례를 재치

있게 조작한/개작한 하나의 습작 정도로 보는 것은 던에 대한 부당한 평가이며 부족한 비평이라고 하겠다. 여성에게 복종하고 충실하고 또 찬미까지 하는 남성 구혼자가 순결하고 도달할 수 없는 우월한 여성을 열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궁정풍 연애시의 관례는 각별히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녀의 총애를 추구하고 야망을 품은 궁정인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는 적합한 것이다. 그러나 던은 당연히 그의 시에서 이러한 관례를 거부하고 조롱한다. 매러미가 말한 것처럼, 던은 그의 시에서 지배적인 궁정풍 사고와 문학적 양식을 거부하고 예의바른 아침 대신에 직설적인 솔직함으로 대치했으며 연애의 이상주의 대신에 성적인 사실주의로 대치했고, 감정적인 신비화 대신에 비평적인 논쟁으로 대치했다(Coterie 45). 주지하다시피 던은 자신이 체험한 복잡한 세계를 그리기 위해 어울림(decorum)에 얽매인 인습적인 양식을 버리고 새로운 수법을 창안해 내었던 시인이다. 던은 모든 그의 사상과 감정을 융합하고 이질적인 사상이나 이미지를 연결하는 형이상학적인 기상을 구사하여 표현상의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던이 그의 연애시에서 그리려고 하는 사랑은 페트라르카풍과 같이 헌신적이고 정신적인 사랑만은 아니어서 여성을 천사, 장미, 여신 등에 비유하여 미화시키거나 신격화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약속을 저버리는 부정한 여인으로, 혹은 남성의 쾌락의 대상으로서 사실적인 표현과 냉소와 경멸로 그리기도 한다. 던이 그리는 사랑은 페트라르카의 모방이나 궁정풍 연애의 답습이 아니라 자신이 일생을 통해 경험한 사랑의 이야기를 그의 특유한 표현 방법으로 엮어 나간 사랑의 기록이다.

핑카(Patricia Garland Pinka)는 그녀의 저서, 『이 하나의 대화, 존 던의 '연가』』(This Dialogue of One: The Songs and Sonnets of John Donne)에서 작품에 나타난 작가/화자의 성격을 모두 여덟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페트라르카주의자들(The Petrarchists: The Parodists, The Witty Lovers, The Cavalier Petrarchists), 극단주의자들(The Extremists: The Hedonists, The Platonic Lovers, The Negative Lover), 꿈꾸는 냉소주의자들(The Dreaming Cynics), 완전한 사랑을 하는 연인들(The Mutual Lovers)이다. 그녀는 이 중에서 향락주의자들(The Hedonists)과 부정적 연인(The Negative Lover), 그리고 꿈꾸는 냉소주의자들(The Dreaming Cynics)에 속하는 시들을 여성을 폄훼하면서 여성과의 권력거래로 인한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로 보았다. 이 시들은 엘리자베스시대의 시적 전통이나 인습과는 달리 아름답

고 고결하며 정절을 지키는 여인이 아니라 부정되고 변심하기 쉬운, 미움과 조롱의 대상이며, 또한 남성들의 한낱 육체적 쾌락의 대상이 된 여성을 그려냈다. 또한 던이 여인의 부정과 변심하기 쉬운 속성에 대하여 냉소와 조롱을 기탄없이 던지는 시들이기도 하다. 이것은 여성을 정신적 사랑의 관점에서 노래하던 당시의 페트라르카 풍에 대한 반기였으며 여성군주의 통치라고 하는 보다 큰 사회에 대한 도전이었다. 또한 여성을 냉소와 경멸로 그린 던은 여성을 미움의 대상으로 시에 옮겨 놓기도 했는데 남성들의 진실한 사랑을 도외시키고 마음 내키는 대로 변절을 거듭하고 있는 경박하고 부정한 여인들을 증오로 가득 찬 언어로 묘사한다. 그렇지만 던이 구사하고 있는 형이상학적 기상과 역설, 그만의 위트가 두드러진 작품들을 보면 이러한 냉소적 여성관은 사실은 던이 표현하려고 하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던이 사용한 역설로 볼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여성에 대한 혐오적인 태도와 냉소적인 태도는 바로 경직되고 강요된 사랑의 공식, 즉 인간의 원초적이고 자연적인 욕구와 열망에 대한 솔직하지 못한 위선적인 사회적, 문화적 관습에 반발하고 그것으로부터 탈피하여 양성 평등적 사랑의 차원에서 진실한 여성과 진실한 인간관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가를 탐구하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서현주교수는 그녀의 논문, 「Donne과 Yeats의 연시에 나타난 육체와 영혼의 양립성」에서 “던은 특히 여성의 정절이나 고결함, 혹은 절대적인 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실재하는 여성에게서 인간적인 가치와 매력을 강탈하며, 상대방인 남성과의 진정한 합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파악하고 있었다”(247)고 주장한다.

한 예로 던의 시 「무차별」(“The Indifferent”)에서 보면, 중세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서 궁정연애의 복종을 강요하면서 사랑에는 냉정한 그런 정숙한 여자와 이제는 더 이상 진실할 수 없고 종과 같은 수모를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한 여자로부터의 해방을 부르짖으며 여성을 한낱 육체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한 남자와의 치열한 지배의 경쟁이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연에서 남자화자는 함께 사랑할 여자가 “진실”(true)하지만 앓다면, 바꾸어 말해서 여자가 사랑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만 앓는다면, 그 여자가 누가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여러 종류의 여자들을 나열한다. 이것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정신적 사랑이라는 관례에 대한 전면적인 반발로서 그 여자가 미인이건, 추녀이건, 돈에 녹아내리는 여자 건, 돈 없으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떠날 여자

건, 고독을 씹는 여자 건, 가장무도처럼 어울려 놀기 좋아하는 여자 건, 시골여자 건, 도회지 여자 건, 남자를 믿는 여자 건, 남자의 애정을 의심하는 여자 건, 해면처럼 눈물을 잘 흘리는 여자 건, 코르크처럼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여자 건, 여자라면 어느 여자나 다 좋다는 것이다. 외모나 출신배경에 상관없이 물질에 약하든 술수에 능하든 아니면 그 반대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느 여자나 다 사랑할 수 있는데, 다만 정절을 지키는 여자, “진실한” 여자만은 사랑할 수 없다고 남자 화자는 말한다. “이 여자, 저 여자”(her, and her)란 어느 여자 건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도 그대도”(and you and you)에서 보듯이 이제까지는 3인칭으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왔으나 이제는 2인칭으로 마치 여자들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극적(劇的)인 장면을 보인다. 여기서 you는 복수형이다. 그것은 제2연에서 your mothers라고 함으로서 mothers가 복수인 것처럼 you/your도 복수의 의미를 갖는다. 9행에서는 you가 any로 다시 바뀐다. 이것은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한 여자만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임을 의미한다. 또한 남자의 말을 뒤집어 보면, 그 어떤 여자라도 좋으니 여자는 진실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데 여기서의 진실은 정조요, 절개(constancy)를 의미한다. 남자 화자는 여자가 부정(not true)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정신적이기보다는 육체적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던에게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진실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다. 제2연에서도 계속해서 진실하지 않은 육체적 사랑이 남자에게는 더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진실 이외에는 그대들을 만족시킬 다른 악덕은 없단 말인가?
 그대 어머니들이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 그대들의 성질에 맞지 않은가?
 아니면 모든 악덕을 다 시도 해보았는데 이제 또 다른 악덕을 찾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남자들이 진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괴로워하는가?
 아, 우리 남자들은 진실하지 않으니, 그대들도 진실하지 말아요.
 나도 20명의 여자들을 알 터이니 그대도 20명의 남자를 알도록 해요.
 나의 돈을 빼앗아 갈망정, 나를 구속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주쇼.
 그대로 인해 고초를 겪어 온 내가 의당
 그대가 진실하다고 해서 그대의 고정된 종이 되어야 하겠는가?

Will no other vice content you?
 Will it not serve your turn to do, as did your mothers?
 Or have you all old vices spent, and now would find out others?
 Or doth a feare, that men are true, torment you?
 Oh we are not, be not you so,
 Let mee, and doe you, twenty know.
 Rob mee, but binde me not, and let me goe.
 Must I, who came to travaile thorow you,
 Grow your fixt subject, because you are true? (10-18)²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악덕”의 의미이다. 육체적 사랑에서는 진실이 오히려 악덕이 되는 것이다. 던은 기존의 페트라르카 풍 사랑의 진부한 태도나 가치들을 간단히 뒤집어 놓음으로써 정조를 악덕으로, 난잡함(promiscuity)을 미덕과 양식을 갖추는 것으로 간주하는 남자화자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Hunt 3). 다른 악덕은 다 물리치고 왜 진실이라는 악덕을 행하려고 하느냐라는 뜻이다. 매우 기지에 찬 형이상학적 기상의 표현으로서 진실하지 않은 것이 미덕이라는 역설의 의미가 숨어 있다. “그대 어머니들이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 그대들의 성질에 맞지 않은가?”라는 의미는 결국 「노래; 가서 별뿔별이나 잡아라」(“Song: Goe, and catch a falling starre”)에서와 같이 세상 어느 곳에도 진실한 여자는 없다는 뜻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각에서 보면 더 이상 잃어버린 정조에 대한 향수는 없고 오로지 무관심만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인은 진실한 사랑이 있다고 강하게 믿으면서 여전히 남자의 복종을 강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인에게 남자화자는 계속 말을 건넨다. 여자가 진실한 것은 곧 여자가 변함없는 애정으로 남자를 엄매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런 것은 딱 질색이라는 것이다. 그는 왜 이래야 하느냐고 물으면서 남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여자들의 정조란 말인가? 하고 반문한다. 남자들은 진실하지 않다면서 여자들도 진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자들도 많은 남자들을 알도록 하라³고 주장한다. 이것은 육체적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페트라르카풍의 사랑에 대한 혹독한 패러디인 것이다. 그러면서 제발 그

² 이후 원문 인용은 그리어슨(H. J. C. Grierson)교수가 편집한 *Donne: Poetical Works*에 의거했음을 밝힌다.

³ know는 고어로서 쓰일 경우 여자를 성적으로 알다의 뜻이다. 예) 아담은 이브를 알았다(Adam knew Eve).

렇게 하지 말라달라고 간청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강탈해 가더라도 좋으니 제발 자신을 “묶어 두지는 말아 달라”(let me go)고 애원한다. 여성의 정조가 남자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의 자유를 구속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진실하지만 말아 달라는 교묘한 기지를 구사한다. 그 동안 여자를 상대로 수고를 해 왔는데 왜 남자가 사랑에 대한 여인의 믿음 때문에 한 여자의 “고정된 중”이 되어야 하느냐고 말한다. 여자에게 정절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그 여자의 “고정된 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대로 인해 고초를 겪으러 왔다”는 말은 명확히 성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최창호 51). 그대들의 성적인 봉사까지 했는데 이제 자유까지 속박 당해야 한단 말인가 하면서 한 여인/여왕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한다.

마지막 제3연에서는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등장하여 남자화자의 말을 엿듣고 경악하면서 직접 사랑의 문제를 살펴보게 된다. 엘리자베스 시대에서는 비너스는 진실한 사랑, 즉 플라톤주의적인 사랑의 상징이지만 던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진실하지 못한 비너스를 등장시키고 있다. 더욱이 던은 “사랑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Love’s sweetest part)은 “변화”(Variety)라고 역설적인 말을 하면서 “변화”가 진실하지 않은 것, 정조가 없는 것을 의미함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 역시 엘리자베스 시대의 전통에 대한 반작용이요, 그 당시 전반적인 사회성격이 신의 섭리에 의해 합법화되었던 권위적인 정권에서 이제는 다양하고 물질적이고 실용적인, 경쟁하는 압력단체들의 집합체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탈-중심화의 표현인 것이다. 드디어 비너스는 두 세 명의 사랑의 이단자들을 발견하고 여자가 진실함으로써 남자가 여자의 중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또 그런 이상한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이단자들이란 위험한 정조를 지키겠다는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육체적 사랑에 있어서 정조/진실은 악이 되고 난잡함이 선이 되는 것이다. 비너스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미 너희를 배반한 남자들에게나 정절을 지키게 하겠노라”(You shall be true to them, who’re false to you)고 하는 아이러니를 말한다. 이것을 알면 진실할 수가 없을 것이며 더 나가서 진실하게 되면 도리어 화를 당할 것이라고 일종의 위협마저 들게 한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작품은 철저히 육체적인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서 이러한 마지막 역설이 이 시 전체의 냉소적이고 세속적이며 경멸에 찬 남자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녀의 연애관계에서 페트라르카풍의 여성상을 배격하면서 던이 진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초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시에서 던은 여성의 정절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나 사회가 정절이라고 내세우는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여성 스스로가 다듬고 지켜낸 진실한 내면적 가치가 아니라 남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하나의 인습이자 관례임을, 즉 정절을 위한 정절임을 간파하고 이를 거부하려고 했던 것이다. 던은 남성의 끊임없는 구애를 물리친 채 항상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고결하고 차갑게 남아있는 여인 대신에 변심과 부정을 당연한 듯이 일삼는 여인들, 자신의 육체와 감정의 목소리에 솔직하고 대범한 여인들을 등장시켜서 기존의 경직된 남녀관계의 구도를 해체하고 인간의 사랑에서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본성과 열망은 제거한 채 이상화된 정신적 가치로만 무장한 기존의 연애에서 그 가면을 벗겨내어 인간 본래의 목소리로 복귀시키고자 시도했던 것이다. 던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육체적인 관계에 무게를 두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이전의 신플라톤주의가 만들어낸 허상과 맹점을 공박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샌더즈(Wilbur Sanders)는 “가엾은 인간은 실현할 수 없는 이상들을 파는 정신화의 속임수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 왔다”(poor human beings have been much tormented by spiritualizing humbugs hawking ideals incapable of realization; 30)고 하면서 던이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쾌한 조롱과 함께 실제 여성을 끌어안는 것”(to embrace with joyous cynicism the real woman; 30)을 내놓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던은 남녀관계에 있어 정신적인 영혼의 교감에만 높은 가치를 두어왔던 전통과 관례에 반발하고 이에 혁신을 가하기 위해 감각적이고도 육체적인 욕망과 행위, 즉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솔직한 남녀의 사랑에 천착했던 것이다.

III.

앞서 언급했듯이 던의 연애시는 강요된 사랑의 공식, 인간의 자연발생적인 욕구와 열망에 솔직하지 못한 위선적인 사회적, 문화적 관습에 반발하고 그로부터 탈피하여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을 이루는 진실한 관계를 지향했던 것이다. 던

이 여성을 비하하거나 불신하는 냉소적이고 남성우월적인 남자화자를 통하여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의 인습적인 남녀관계와 틀에 박힌 연애시의 맹점을 드러냈던 것이다. 던은 기존의 지조 있고 변함없는 이상적인 여인보다는 쉽게 변심하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부정한 여인을 등장시키고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 무조건적인 찬탄이나 헛된 원망대신에 변화무쌍한 여인에 대한 남자화자의 심리를 다양하게 묘사한다. 페트라르카풍의 연애시는 주인공인 여성과 그녀에게 복종하는 남자뿐만 아니라 그 둘 관계조차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박제화 되고 정형화됨으로써 진정한 생명력을 상실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도식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이란 서로에게 굴레이자 속박일 뿐이며, 진실한 인간적인 접촉이나 만남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던이 많은 연애시에서 여성의 정절에 냉소를 보내거나 그 희소성 내지는 부재를 공공연히 말하는 것은 도덕적, 정신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아니라 그 시대에 정절이라 불리고 통용되던 것의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오히려 던은 그러한 냉소와 반발을 통해 진실하고 신의 있는 여성, 더 나아가 인간,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과 한결같은 마음을 바탕으로 한 남녀관계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던의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어조는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며 사실 그 바탕에는 진실한 여성과의 총체적인 교감의 관계를 지향하려는 한 남자화자의 인간적인 내면의 목소리가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랑의 연금술」(“Love’s Alchemy”)에서도 정신만의 결합으로 결혼서약을 하고 여성에게서 천상의 가치를 기대하는 남자들의 이기심을 조롱한다. 역시 이 시에서도 육체적인 사랑의 대상으로서 여성이 등장하는데 물론 그 여성은 찬미의 대상이 아니라 모욕의 대상이 된다. 남자가 소유하고 나면 여자는 미이라, 즉 아무 생명력이 없는 한낱 육체에 불과하다고 폄훼하고 있다. 그러한 여성을 상대로 사랑의 “정신적인 행복”(centric happiness)을 구한다는 것은 마치 중세시대의 연금술에서 영약인 “연금약액”(Elixir)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헛된 일이라고 남자화자는 말한다. 자신보다 사랑의 광산을 깊이 파본 일이 있는 사람들이/남자들이 있다면 그 사랑의 정신적인/중심적인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말해달라고 대화체의 어조로 제1연은 시작한다. 물론 사랑의 광산을 판다는 말은 육체적인 성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어디에 그러한 사랑의 중심적인 행복이 자리 잡고 있느냐고 남자는 반문을 하는데 이것은 육체적 사랑에는 그러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나는 이제까지 사랑하고 손에 넣고 자랑해 왔다”(I have lov'd, and got, and told)는 말은 진지한 말투가 아니다. 이것 역시 육체적인 사랑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한 육체적인 사랑을 늙을 때까지 계속해 보았지만 저 숨은 사랑의 신비, 즉 사랑의 영적인 행복은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지 모두가 “사기”(imposture)일 뿐이라는 것이다. 연금사가 찾는 영약은 얻지 못하고 도중에 우연히 어떤 향료나 약제를 얻었다고 해서 그 배부른 도가니만을 찬양하는 것처럼, 연인들도 풍요하고 긴 즐거움을 꿈꾸고 있지만 겨울과 같은 여름밤을 얻을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역시 배부른 도가니는 육체적인 여성, 즉 배부른 임신부를 연상할 수 있다. 또한 겨울과 같은 여름밤은 춥고 짧은 육체적 밤을 의미한다. 제2연에서도 남자화자는 같은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신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여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결혼은 육체가 아니고 마음이며 천사와 같은 마음을 여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맹세하는 저 사랑에 열빠진 남자들은 마치 결혼식 날, 소란스러운 음유시인의 노래 속에서 천체의 음악을 듣는다고 맹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빈정댄다. 남자화자는 한결음 더 나아가 여자에게서 마음이란 바라지도 말라고 말하면서 잘해야 재색은 갖추고 있으나 그러한 여자도 소유하고 나면 미이라일 뿐이라고 모욕적인 언사까지 구사하면서 남자들의 어리석음을 조롱한다.

결혼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마음이며,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여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맹세하고 있는 사랑에 열빠진 자는,
 저 결혼식 날의 소란한 노래 속에서
 천체의 음악을 듣는다고 맹세하는 것과 같은 것이오.
 여자에게서 마음이란 바라지도 말라, 잘해야
 재색을 갖추고 있으나, 소유하고 보면 미이라일뿐.

That loving wretch that swears,
 'Tis not the bodies marry, but the mindes,
 Which he in her Angelique findes,
 Would swear as justly, that he heares,
 In that days rude hoarse minstralsey, the speares.
 Hope not for minde in women; at their best

Sweetnesse and wit, they'are but *Mummy*, possest. (18-24)

결혼을 정신적 결합이고 여자의 마음이 천사와 같다고 하는 것은 플라톤주의적인 이상주의이고 여성에 대한 페트라르카풍의 숭배인데 이 시는 그러한 영적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 레이쉬먼(J. B. Leishman)의 말대로 던은 이 시에서 주로 재치를 부리고 역설적이며 주의를 끄는 그런 면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당시 단순한 유행으로 전락한 플라토닉하고 페트라르카풍의 이상화에 반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156).

이외에도 여성을 육체적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여성을 모욕하는 또 다른 노래가 「공동 재산」(“Communitie”)이다.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여자는 선과 악과는 무관한 존재로서 여자가 선하다고 사랑하고 악하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안하고는 남자의 “기분”(fancy)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태초에 대 자연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게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남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만일 여자가 선하다고 한다면 그 선함은 그대로 나타날 것이고 악하다고 해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니 잘못 비난하거나 찬미했다고 해서 여자의 탓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여자는 과일과 같아서 남자의 것으로서 남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싫증이 나면 다른 과일로 바꿔 먹을 수도 있고 속을 먹고 나면 껍질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자를 바꾸는 것은 다만 먹는 과일의 종류를 바꾸는 것일 뿐 속 알맹이를 먹고 난 뒤에 빈 껍질을 누가 버리지 않겠는가 하면서 철저하게 여성을 모욕하는 육체적 사랑을 노래한다. 페트라르카풍의 소네트에서는 남자는 늘 여자의 온갖 변덕에 완전히 굴복하고 여자의 오만한 변덕으로 몸과 마음이 고뇌와 병으로 시달리면서도 궁정풍 연애에서와 같이 헌신적이고 충실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여자는 이제 남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선택을 받는 입장으로 전락한다. 여자 스스로 비난이나 찬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 다만 남자가 보고 그 사랑과 미움을 선택할 뿐이다. 이 시 역시 여자를 매우 냉소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 중에 하나이지만 던은 여자에게서 권위(sovereignty)를 잃게 하여 남자와 동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찌면 이 시는 여왕을 왕위에서 찬탈하여 남자에게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독특한 정치적 반항을 가진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남자의 지배는 궁정풍 사랑의 관례와 1590년대 영국의 정치 상황과는 상충하는 지배인 것이다. 이것은 위축되었던 남자의 권위를 복구하면서 여자를 중성적인 존재로 전락시켜 여자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그 동안 복종만 해왔던 남자에게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자에게도 여자를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게 되어 남녀의 관계는 동등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던에게 있어 사랑의 완전한 관계는 육체와 정신의 균형뿐만 아니라 사랑의 주체인 두 남녀 사이의 균형과 조화까지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자신들의 한계는 깨닫지 못한 채 여성에게만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진정으로 아름답고 참된 여성과 교류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처녀로서 모성애적인 어머니로의 이행이라는 사회적으로 지지되어온 여성 이미지와 문학 장르, 특히 남녀사이의 사랑을 노래하는 연애시에서 강화되어온 절대미와 도덕적 완전무결함으로 극대화된 이상적인 여인상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이것을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굴레이자 속박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정숙한 귀부인 내지는 완벽한 여인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기대 및 환상은 여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들의 인간적인 아름다움과 미덕의 의미를 상실케 하며 여인에게 무조건적인 복종과 경애를 바쳐야 하는 남성들에게도 역시 굴레이자 억압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시에는 그와 같은 여성상과 관계구도를 미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그러한 인습 속에서는 남녀 사이의 충만한 합일의 관계 역시 요원할 뿐이라는 함의가 있게 된다. 던은 성별간의 대결이나 불평한 힘의 배분 대신에 양성을 모두 인간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통해 이해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작품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이면서 억압의 대상이었던 여성에게도 이제는 새롭고 당당한 목소리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다(서현주 265). 던은 기존의 연애시에 으레 등장하는 정절의 화신, 고결하고 정숙한 여인 대신에 쉽게 변심하고 또 그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는 부정한 여인을 등장시킴으로써 기형적으로 부풀려져 있었던 정절을 비롯한 도덕적, 정신적 가치가 실제로는 빈껍데기에 불과했으며 따라서 그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고 있음을 밝혀낸다. 던은 깊은 통찰과 내면화를 결여하고 있는 정신의 허상과 허구를 전복시키고 보다 새롭고 진지하게 인간적인 진실을 반영하는 구도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던의 시에 나타난 화자는 남성화자와 여성화자라는 구분을 초월하여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IV.

던의 작품 중에서 「좋은 아침」(“The Good-Morrow”)과 「시성화」(“The Canonization”), '고별사: 슬픔을 금하며」(“A Valediction: Forbidding Mourning”), 그리고 「황홀」(“The Ecstasie”)과 같은 시들은 남녀의 사랑을 진지하게 다루면서 궁극적인 주제인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작품들로서 남녀의 양성 평등적 관계를 잘 담아내고 있는 작품들이라고 하겠다. 던은 이와 같은 시에서는 변심을 일삼고 변덕스러운 여성상이 아니라 참되고 아름다운 여성상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페트라르카풍의 여주인공이라는 이상과는 같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던에게 있어 진실한 여성이란 어떤 것이며, 더 나아가 진실한 남녀관계, 진실한 사랑이란 어떤 모습을 띠는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남녀의 완전한 사랑으로서 양성 평등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먼저 한 예로서 「좋은 아침」을 살펴보면, 이 시의 세연은 각별히 극적 플롯에 적합한 구조인데, 제1연에서는 연인들의 과거가 남자화자가 하는 말의 주제가 된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은 시의 구성상 매우 긴요한데 그것은 어느 모로 보나 연인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세속적 사랑은 그보다 앞서 무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인들이 사랑하기 이전의 과거는 이제는 이들의 영혼이 사랑이 진정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현재와 부딪치게 되었을 때에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게 된다. “코골며”(snorting) 잠이나 자고 “촌스러운 쾌락”(country pleasure)이나 좋아 했던 과거는 이제 공상적이며 유치한 것으로 판명된다. 역전을 나타내는 제2연은 연인들의 상황에 변화가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은 깨어나는 우리 영혼에게는 좋은 아침,
이제 우리는 두려움에서 서로를 경계하지 않는다.
사랑은 모든 결눈질을 즐기는 마음을 금하고,
하나의 작은 방을 전 세계로 만들기 때문이다.

And now good morrow to our waking soules
Which watch not one another out of feare;
For love, all love of other sights controules
And makes one little roome, an every where. (8-11)

이제 시간에서 공간으로의 변화가 있게 된다. 현재가 남자화자의 말에 주제가 되는데, 현재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의문은 없고 장소에 대한 의문이 있게 된다(Smith 229-30). 연인들은 “하나의 작은 방”에 있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세계가 됨을 인식한다. 방밖에는 탐험가들이 신대륙 발견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활기찬 활동적인 세계가 전개되지만 이와 같이 활동적인 바깥 세계도 과거가 현재로 점차 바뀌는 것처럼 “도처”가 되는 연인들의 작은 방으로 동화되고 만다. 연인들이 하나의 세계를 소유한다(Let us possess one world)는 생각은 제3연인 마지막 연으로 넘어간다. 남자화자는 말하고 여인은 그 남자 앞에 앉아 그의 눈을 말없이 들여다 보는 상황이 바로 첫 줄에 나타난다: “나의 얼굴이 당신의 눈 속에 나타나고 당신의 얼굴이 내 눈 속에 나타난다”(My face in thine eyes, thine in mine appears).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true plain hearts)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남자화자로 하여금 그와 그의 여인은 그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세계는 찾아 볼 수 없는 이상적인 세계인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는 두개의 반구가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매서운 북쪽도 없고, 해지는 서쪽도 없는
이보다 더 나은 두개의 반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오?

Where can we finde two better hemispheares
Without sharpe North, without declining West? (17-18)

여기서 두개의 반구는 연인들 각자는 하나의 세계라고 암시하는 제14행의 뒷부분에서의 모순(“each hath one, and is one”)을 부수적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두개의 세계가 있다는 암시인 것처럼 보이거나 이것은 그들의 사랑은 순수한 물질과 같아서 그 사랑의 요소에는 전혀 모순이 없기 때문에 쇠퇴를 모른다고 하는 새로운 발견을 연인들로 하여금 하게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래에 대한 어떤 암시가 있는데, 남자화자는 자신과 여인을 처음에는 두개의 완전한 반구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의 순수한 물질, 즉 이미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며 더 본질적이지 못한 것으로는 감소할 수 없기 때문에 파멸할 수 없는 순수한 물질에다 비유해 나간다. 이미 “두개의 반구”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는 “균

등하게”(equally), “하나”(one), “똑같이”(alike)와 같은 단어에서 던의 양성 평등적인 사랑관을 엿볼 수 있다.

죽는 것은 어느 것이나 균등하게 혼합되지 못한 것;
만일 우리 둘의 사랑이 하나이고, 그대와 내가 똑같이,
어느 쪽도 기울지 않게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죽지 않으리.

What ever dyes, was not mixt equally;
If our two loves be one, or, thou and I
Love so alike, that none doe slacken, none can die. (19-21)

물론 이러한 사상의 근원을 토머스 아퀴나스까지 찾아 더듬어 갈 수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던은 분명히 어떤 철학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남자화자가 어떤 사상을 관조(觀照)하는 것으로 접근한다면 그 사상은 하나의 각별한 경험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한 물질과 같아서 쇠퇴를 모르는 완전한 사랑을 위하여 이렇게 남녀의 사랑은 동등하다고 하는 사상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남자화자의 열정적인 독백(impassioned monologue)의 결과로서 남자화자가 자연발생적으로 발견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적이면서 현실적인 사랑을 노래해야 하는 던/남자화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상이 시 전체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도달점이 되는 것이다. 제1연과 제2연에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견지하고 있는 연인들에게는 미래는 죽음이나 쇠퇴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 동등한 세계가 되기 때문이다. 「좋은 아침」에서 느끼는 이러한 열정적인 현실감(passionate reality)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자화자가 호기심 있게 어떤 하나의 사상을 관찰한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인들이 있는 “하나의 작은 방”이 암시하는 무대배경 때문이기도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연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피와 살이 있는 (flesh-and-body) 실제적인 두 인물이 서로 관계하며 연기하는 상황 때문인 것이다. 즉 이 시는 두 남녀가 사랑의 밤을 보내고 새로운 완전한 사랑을 깨달은 뒤 “아침에 침대에 누워 평화롭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a bedroom scene in which two lovers lie at morning peacefully gazing at one another; Clay 54) 극적인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기에서의 현실감은 이 시의 언어가

갖는 대담한 개인적인 성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연발생적인 분위기, 즉 남자화자가 사상을 잉태하는 과정에 있는 바로 그 분위기를 나타낸다. 이 시는 한가로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여인에게 노래하는 그런 엘리자베스 시대의 연가가 아니라 당면한 현재(immediate present) 속에서 실제의 여인에게 사고과정에 있으면서도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한 남자화자의 분위기를 잘 창출해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각과 말하는 목소리를 절묘하게 관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성화」를 보게 되면, 이 작품은 사랑을 찬미하는, 사랑이 주체가 되는 시로서 진정한 남녀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이들의 사랑이 속세의 연인들에게는 그 역할모델(role modal)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야말로 남녀 사이의 상호적이며 평등주의적인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던은 아름다운 여인은 이상적이며 초월적인 사랑의 “패턴”(pattern)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인유하고 있지만 그러한 인습적인 비유를 던은 다시 쓰고 있다. 신플라톤주의자 남자라면 사다리를 타고 천상의 사랑으로 올라갈 때 여인의 세속적인 몸을 남겨두고 가겠지만 던은 제5연의 1행 “그러니 우리들에게 기원하라”(And thus invoke us)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주관적인 남과 여의 결합을 불멸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immortalizes the intersubjective union of man and woman; Bell 212). 시작은 격분과 경멸을 마구 쏟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화자가 점차 흥분해 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연인들의 사랑을 포기하라는 남자친구 때문인데 그의 충고를 거부하며 남자화자가 스스로 열정에 빠진 것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처음에는 참을성 없이 반 조롱과 반 경멸적인 자세를 보이지만 그러나 시가 전개되면서 점차 완전한 사랑의 비전과 성실한 마음과 평화의 상태로 발전한다. 비록 주제는 변함없지만 「시성화」라는 제목과 일치하는 연은 전체 5개 연중에 마지막 두 연이고 그 앞의 세연은 연인들이 성인의 요람에 입적하는 것과는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제3년부터는 인칭이 “나”(I)와 “그녀”(she)에서 “우리”(We)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한 쌍의 남녀의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을 통하여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종교적 사랑에서와 같이 성자의 반열에 함께 오르려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우리”라는 인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남녀의 경계와 구분은 사라지고 육체와 영혼이 한 인간을 구성하듯이 합일된 존재가 된 것이다.

제1연과 제2연에서 화자는 반어적으로 감정을 폭발한 뒤 친구가 연인들의 사랑은 마치 불빛에 현혹되어 날뛰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탓하자 이제는 빈정대는 태도를 금하고 자화자찬(self-glorification)의 태도로 바뀌어 간다. 자신들의 사랑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으니 사랑을 마음 놓고 하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사랑으로 인해 자신들은 불나방이 되었으니 그렇게 불러 달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서는 스스로 불에 타는 나방의 은유에서 기인한 불사조의 은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독수리와 비둘기도 역시 불에서 솟아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육의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정육의 불에 스스로 몸을 태우는 촛불은 모두다 육체적인 사랑의 상징이다. 그러나 육체적 사랑으로 죽은 불나방은 그 다음 행에서는 독수리와 비둘기로 승화하게 된다. 남녀사이의 사랑은 육체적 사랑이 끝난 뒤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날아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수리와 비둘기는 영적인 사랑의 상징이 된다. 불나방과 촛불이 지니고 있는 불타서 죽는 이미지와 독수리와 비둘기가 지니고 있는 새의 날아오르는 이미지의 결합에서 자연스럽게 불사조의 모습을 보게 된다. 물론 불사조는 완전한 사랑의 상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화자는 이와 같은 불사조의 신비는 완전한 사랑의 “우리”때문에 더욱 의의를 갖게 된다고 말한다.

우리를 마음대로 부르라,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
 그녀를 하나의 나방, 나를 또 하나의 나방으로 부르라,
 우리는 또한 촛불, 스스로 제 몸을 불태워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 속에서 독수리와 비둘기를 발견한다.
 불사조의 신비는 우리 때문에 한층 더 의의가 있다.

Call us what you will, wee are made such by love;
 Call her one, mee another flye,
 We'are Tapers too, and at our owne cost die,
 And wee in us finde the'Eagle and the Dove,
 The Phoenix ridle hath more wit
 By us. (19-24)

불사조의 신비는 바로 연인들의 신비인 것이다. 아라비아의 전설 속에 나오는 불사조는 스스로 양성을 결합하고 있다는 새로서 500년마다 스스로 불붙고는 그 갓

데미 속에서 똑같이 다시 나타나는 새이다. 연인들은 “우리는 둘이면서 하나”이기에 불사조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두개의 양성은 “하나의 중성”으로 적합하게 결합하여 어느 때처럼, “우리는 똑같이 죽고 똑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신비로운 불사조의 속성을 지니게 된다. 여기서도 역시 던의 양성 평등적 남녀의 사랑을 선명히 알 수 있다.

... 둘이 하나인 우리가 바로 불사조이니,
 그래서, 양성은 하나의 중성에 적합하게 된다.
 우리는 똑같이 죽고 일어나노니, 사랑에 의해
 신비스러운 것으로 입증된다.

... we two being one, are it.
 So, to one neutral thing both sexes fit.
 We die and rise the same, and prove
 Mysterious by this love. (24-27)

“우리는 똑같이 죽고 똑같이 일어난다”의 표면적인 의미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남자화자와 그의 여인은 예전에 그랬던 것과 같이 사랑을 나눈 뒤에도 “똑같이” 보인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좀 더 반전적인 의미는 그들은 “똑같이 일어난다”, 즉 더 이상 남과 여가 아니라 죽어서 자신의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되는 신비로운 새, 불사조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들의 양성은 “하나의 중성”적인 것에 적합하게 되는 것이다.⁴ 소멸한다와 성적인 절정에 도달한다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진 동음이의어인 “죽다”의 의미는 성적인 황홀경은 결국 양성을 변화시켜 신비롭게 성차별을 용해하여 전통적인 성 역할을 다시 형성하게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친구는 여전히 간접하면서 연인들의 사랑은 연인들을 파괴할 뿐이지 이승의 세계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심지어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에도 그들에게 원만한 삶을 영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제

⁴ 불사조는 던의 이질적인 연인들에게 사포(Sappho)와 필라니스(Philaenis)의 동성애를 매우 신비롭게 만든 그러한 유사성과 상호성, 즉 “같음”(likenesse)을 부여한다(Bell 213).

4연에서 남자화자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소 반항적인 태도로 반응한다. 연인들은 “사랑으로 살 수 없다면, 사랑으로 죽을 수는 있다”(Wee can dye by it, if not live by love)는 것이다. 제5연에서 이제 사랑의 완전함이 사랑의 반대보다 더 우세하게 되어 연인들은 결국 교회의 시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주의적인 사랑을 구현한 존재로서 “시성이 된다”(Canoniz’d). 이 남녀 한 쌍의 사랑은 신비가 되며 그러므로 그들은 “전설”(legend)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신기한 그러나 진실한 이야기는 후세의 사랑에 충실한 연인들을 교화하기 위해 쓰여 지게 되고 그들의 명성은 “열왕기”에는 아니지만 적어도 “찬송가”에는 안전하게 놓이게 된다.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이 말은 자연스럽게 남자화자와 그의 여인은 사랑을 위해 “시성이 된다”는 발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V.

이와 같은 남녀의 양성 평등적 관계는 이제는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서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진실한 남녀의 사랑으로 발전하게 된다. 가령, 「황홀」은 모두 76행으로 이루어진 시로서 던은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영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시이다. 또한 이 시는 완전한 사랑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가 상호 연결되고 상호의존(interconnexion and mutual dependence)하고 있다고 하는 사랑에 대한 던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Grierson 41).⁵ 던은 이 「황홀」이라는 작품에서도 영혼이 육체로부터 이탈하는 정신적 사랑이라는 신플라톤주의적인 이상을 거부하고 있다(McDuffie 8). 이 시의 53행에서 56행에서 던은 두 남녀의 영적 결합에는 반드시 육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이미 「좋은 아침」이나 「시성화」와 같은 시에서도 찾아보았다. 곧 육체가 영혼을 영혼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게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⁵ 그리어슨(H. J. C. Grierson)은 황홀을 네 가지 상태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영혼이 육체로부터의 해탈(the exodus of the soul)이며, 둘째는 완전한 적멸(the perfect quietude)이며, 셋째는 새로운 직관(the new insight)이며, 넷째는 두 영혼의 접촉과 결합(the contact and union of the souls)이다(Poems 42).

이 시의 초두에서처럼, 육체(손 hands과 눈 eyes)에 의해서이기 때문이다. 영적 결합에 있어서 육체적인 결합이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은 던의 연애시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영혼의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육체의 불가결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던이 영적 사랑만을 예찬하는 플라톤주의자가 아님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육체는 한낱 “불순물”(dross)이 아니라 인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8). 육체의 기능은 감각에 있는데 그 육체는 영적 결합을 견고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Grierson 44). 던은 금을 영혼에 비유하는 은유로 들고 있는데, 즉 순금은 유연하지만 동과 같은 다른 금속과 합치면 강하고 굳은 금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던은 육체를 금의 질을 약화시키는 “불순물”이 아니라 오히려 금을 견고하게 만드는 “합금용 금속”(alloy)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우리에게 처음 가져다주었고,
그들의 힘, 감각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에게는 불순물이 아니라 합금이다.

We owe then thanks, because they thus,
Did us, to us, at first convey,
Yielded their forces, sense, to us,
Nor are dross to us, but alloy. (53-56)

이곳에서 남자화자는 유달리 “우리”라는 단어를 되풀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굳건히 결합된 것과 같이 남과 여, 너와 나의 구별을 초월한 합일된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57행에서 60행에서도 던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육체라고 하는 매개체(through the medium of body; 45)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천계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중세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때에 천계의 영향은 우선 “대기”(ayre)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에게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에게 대한 천계의 영향을 비유로 해서, 사랑하는 두 사람의 영과 영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육체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두 영혼의 결합에는 육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육체를 통해야만(only via the body first; Nutt 72)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천계의 영향이 우선 대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에게 작용할 수 없는 것처럼,
 영혼도 우선 육체에 의지해야만
 영혼은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On man heavens influence workes not so,
 But that it first imprints the ayre,
 Soe soule into the soule may flow,
 Though it to body first repaire. (57-60)

다음 61행에서 68행까지는 영혼과 육체의 결합인 완전한 사랑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영적 위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육체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와야 한다”(descend)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던은 숭고한 사랑은 영적인 결합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정신적 사랑을 부인하고 사랑하는 두 사람의 영혼은 “감각”(sense)이 미치고 잡을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와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즉 영적 위치에만 머물러 있으면 “위대한 왕자”(great Prince)인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플라톤주의적인 이미지는 거부되고 육체는 “위대한 왕자”인 영혼을 포로로 만드는 고립된 감옥의 문을 열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요컨대 던은 두 사람의 사랑의 결합에도 영혼과 육체의 중간 매체인 애정과 정신적 기능⁶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던은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을 나눈다고 해서 정신적인 면이 쇠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오히려 진정하고 완전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육체와 영혼 사이에는 조화와 균형이

⁶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기에 그것은 “정교한 매듭”(subtle knot)과 같아서 그 매듭을 맺는 데는 손가락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과 육체의 결합에도 중간 매개체로서 “정신”(Spirits)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은 육체의 껍데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만 “영혼에 가장 가까운”(as like soules as it can) 영혼과 육체의 중간 매체이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성을 비하하고 냉소적으로 폄훼하는 부정적인 사랑의 시이건, 아니면 남녀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랑의 시이건, 던의 연애시의 기저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남녀의 사랑관은 여성혐오가 아니라 육체와 영혼사이뿐만 아니라 남녀 사이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양성 평등적 사랑관이 지라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을 비하하는 시에서 던은 기존의 연애시에서 볼 수 있는 정절을 고수하는 정숙한 여인 대신에 쉽게 변심하는 부정한 여인을 등장시킴으로써 그 당시 기형적으로 부풀려져 있었던 정절을 비롯한 도덕적, 정신적 가치의 실재가 얼마나 꺾어졌는가를 보였던 것이다. 던은 기존의 페트라르카풍의 시에서 박제화되고 정형화된 남녀의 굴레와 속박을 해방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여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환원하려고 했으며 이를 위하여 양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남녀의 사랑을 보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던은 그의 작품에서 성별간의 대결이나 불평등한 힘의 배분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양성을 모두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통해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다. 던은 깊은 통찰과 내면화를 결여한 정신의 허상과 허구를 풍자하면서 진지하게 인간적인 진실을 반영하는 사랑을 구상했으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을 초월하여 보다 깊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실존하는 인간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했던 것이다. 던은 그의 연애시에서 한 쌍의 남녀가 비록 전복시킬 힘은 없었지만 그들이 태어나고 죽은 그 당시의 가부장적인 정치체제와 사회에 도전을 하는 방식들을 극화했던 것이다. 동시에 던의 가장 도전적이며 혁신적인 시들은 한 남자화자의 욕망뿐만 아니라 매우 독특하면서 전례가 없는 “하나의 대화”(dialogue of one; “Ecstasie” 74)를 구체화하고 만들어 내는 황홀한 “서로의 느낌”(mutuall feeling; “Sappho to Philaenis” 32)이라는 남녀의 친밀감(intimacy) 그 자체를 묘사했던 것이다.

주제어 | 던, 페트라르카풍의 사랑, 여성혐오, 양성평등, 육체, 영혼, 조화

인용문헌

- 서현주. 「Donne과 Yeats의 연시에 나타난 육체와 영혼의 양립성」. 『한국 예이츠 저널』 10 (1999): 245-268.
- 이상엽. 「존 던의 『연가』에 나타난 사랑의 정치학: 여성 혐오를 중심으로」. 『밀턴연구』 13.1 (2003): 67-98.
- 최창호. 『존 던의 연애시: 그 이해와 감상』. 형설출판사, 1997.
- Bell, Ilona. "Gender Matters: The Women in John Donne's Poems."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Donne*. Ed. Achsah Guibbory. Cambridge: Cambridge UP, (2006): 201-216.
- Carey, John. *John Donne: Life, Mind, and Art*. New York: Oxford UP, 1981.
- Hunt, Clay. *Donne's Poetry: Essays in Literary Analysis*. New Haven: Yale UP, 1956.
- Freccero, John. "Donne's Compass Image." *John Donne and the Seventeenth-Century Metaphysical Poets*.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1986. 11-26.
- Guibbory, Achsah. "'Oh, let mee not serve so': The Politics of Love in Donne's Elegies." *Critical Essays on John Donne*. Ed. Arthur F. Marotti. New York: G. K. Hall, 1994. 17-36.
- Grierson, H. J. C., ed. *Donne: Poetical Works*. London: Oxford UP, 1979.
- _____, ed. *The Poems of John Donne*. Vol. 2. London: Oxford UP, 1912.
- Leishman, J. B. *The Monarch of Wit: An Analytical and Comparative Study of the Poetry of John Donne*. London: Hutchinson, 1951.
- Marotti, Arthur F. "'Love Is Not Love': Elizabethan Sonnet Sequences and the Social Order." *ELH* 49.2 (1982): 396-428.
- _____. *John Donne: Coterie Poet*. Madison: U of Wisconsin P, 1986.
- McDuffie, Felecia Wright. "To our bodies turn we then": *Body as Word and Sacrament in the Works of John Donne*. New York: Continuum, 2005.
- Nutt, Joe, ed. *John Donne: The Poems*. Basingstoke: Macmillan, 1999.
- Pinka, Patricia Garland. *This Dialogue of One: The Songs and Sonnets of John Donne*. Tuscaloosa: U of Alabama P, 1982.
- Sanders, Wilber. *John Donne's Poetry*. Cambridge: Cambridge UP, 1971.
- Smith, James. "On Metaphysical Poetry." *Scrutiny* 2 (1933): 157-171.

ABSTRACT**John Donne's Gender-Equal Love****Sangyeop Lee**

Donne, breaking from the Petrarchan view of woman and of love, tries to achieve harmony not only between man and woman but also between body and soul. He thinks that it is very unrealistic to see the female image as a chaste and heavenly woman who is supported and reinforced by society and its literary conventions. Such a female image usually robs woman of her true, human beauty and of her true virtue. As far as man is concerned, it also confines him to a role of submissive and hopeless suitor. Donne believes that the distorted image of woman and her relationship with man hinders true love or communion between them. Therefore, he tries to understand both sexes on the same condition, namely, gender equality based on the meaning of true human being. For example, Donne in his poetry introduces an unfaithful woman who betrays and doesn't feel guilty. He refers to such a woman as is not true to love as a sign of the futility of moral and spiritual values that don't have true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And he also subverts the false conception that soul is superior to body in order to take a new and true picture of human being.

Key Words | Donne, Petrarchan love, misogyny, gender equality, flesh, soul, harmony